

무한경쟁 무인텔의 '무한변신'

종업원이나 다른 투숙객과 마주치지 않고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텔이 진화하고 있다.

단독주차장과 무인 결제시스템을 갖춘 무인텔은 타인과 접촉 없이 이용이 가능해 사생활을 중시하는 현대인들 사이에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그만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커플 게임룸부터 고기 굽기 등이 가능한 클럽핑장을 갖춘 곳까지 생기는 등 무인텔이 무한 변신 중이다.

시설이 고급화되면서 1일 이용료가 25만원인 곳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시설은 가격을 2만원 이하로 내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무인텔 업체들은 단골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용횟수에 따른 무료 숙박 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차별화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일반 모텔들은 궁여지책으로 1층에 무인 결제기만 배치해놓은 사실상 '작동 무인텔' 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광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내 영업중인 숙박업소는 관광호텔 12곳을 포함한 702곳으로, 이중 무인텔은 5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인텔 밀집지역인 광산구 하남 일대 등은 주말이나 휴일은 물론 평일 대낮에도 대실(기본 2~3시간 사용)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민방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커플 게임룸에 클럽핑장도 갖춰 젊은층 파티룸 등 사용 등 인기 이용 늘며 서비스 차별화 경쟁 광주 50곳 성업 속 신축 늘어

개별 공간으로 구성된 무인텔은 1층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무인 결제기에 현금을 넣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숙박상 현금사용이 일반화된 탓에 일각에선 건설사 등 일부 기업이 비자금 확보를 위해 무인텔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광주·전남지역 무인텔은 2000년대 초반 골프장이 다수 위치한 화순 등 시외권을 중심으로 처음 들어섰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광주 도심으로 하나둘씩 진출했고, 현재는 광주에만 50개 업소가 광산구 하남과 첨단지구 등을 중심으로 성업 중이다.

초창기 무인텔은 '불륜 커플'을 위한 숙박업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편리한 주차와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평소 무인텔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홍규(35·가명)씨는 "기본 모델은 엘리베이터나 카운터 등에서 사람을 마주치면 민망했지만, 무인텔은 그런 걱정이 없어

여차친구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무인텔을 1인 1주차가 가능한 '완전무인텔'과 기존 모텔 1층에 무인 결제기만 놔두고 영업하는 '일반무인텔'로 구분한다"며 "완전무인텔은 호실마다 각각 1층을 주차장으로, 2층을 객실로 활용해 많은 대지와 함께 건축비가 들지만 찾는 손님이 많아 신규로 건축하는 업주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무인텔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별한 테마로 중무장한 업소도 등장하고 있다. 일부 무인텔은 최근 인기를 얻고있는 고사양 PC게임과 콘솔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커플게임룸을 운영하고 있다. 커플게임룸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객실보다 일찍 예약마감이 되고있다는 게 업주의 말이다.

또 육상을 활용해 클럽핑(고급스럽고 편리한 물건들을 갖춰 놓고 하는 야영)을 즐길 수 있는 무인텔도 인기다. 이용 금액이 25만원선으로 매우 높지만, 도심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등 클럽핑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에 친구, 가족단위 손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일,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에 20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즐길 수 있는 '파티룸'도 젊은층 사이에 선 사랑받고 있다. 반면 건립된 지 오래된 화순 도곡온천 주변의 무인텔들은 이용료를 2만원선 이하로 내려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5년간 마약류 밀반입 33건 적발

광주본부세관이 지난 5년간 16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마약류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은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33건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류의 중량은 5.3kg 정도로, 금액으로 따지면 16억원 상당이다. 지난 2016년 443g에서 2017년 1673g(11건), 2018년 2679g(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류는 대마(730건 중 309건)였고, 국제우편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건수(660건 중 583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은 광주·전남·전북과 대전·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심 의원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마약 알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진도 맹골 해상서 어선 침수...선원 14명 전원 구조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해상에서 선원 14명이 탄 24급 어선이 큰 파도에 휩쓸려 침수됐다 해경에 구조됐다.

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서쪽 9.2km 지점에서 완도선적 어선 K호(24급)가 이동 중 큰 파도를 만나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헬기를 급파해 선박의 갑판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 14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침수에 따른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집행유예 기간 재범 5년간 1만명 넘어

광주지검은 898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최근 5년 동안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을 잃은 인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만1240명에 달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014년 1698명이었던 전국의 집행유예 실효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2725명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2612명이었다. 올해는 7월 기준 1345명 수준이다. 지방검찰청별 집행유예 실효자는 수원지검이 15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지검(1245명), 인천지검(996명), 광주지검(89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 9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이 공예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최다 지역 광주 서구 쌍촌동...전남은 여수시 교동

지난해 광주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 쌍촌동, 전남에서는 여수시 교동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2건 이상) 보행 노인 교통사고가 나 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 20곳, 전

남 26곳으로 확인됐다.

광주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20곳 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은 서구 쌍촌동 화정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정문 부근(9건)이다. 이는 전국 사고다발지역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전남에서 사고가 가장 빈번한 곳은 여수시 교동 조은한의원 부근 도로(11건)로 전국에서 3번째로 사고가 많은 지역으

로 기록됐다. 전체 노인 보행자 사망자중 사고다발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47.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가 46.4%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광주의 보행노인 교통사고 시간대별 사망자 현황은 전체 28명 중 새벽 4~6시·낮 12시~오후 2시·밤 10시~정오가 각각 4명으로 42.8%를 차지했다. 전남은 전체 62명의 사망자 중 오전 8~10시·오후 6시~8시에 각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축협 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 늘어

3년간 광주 627건·전남 979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을 겨냥해 농축협 계좌를 이용한 금융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8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광주 627건·전남 979건 등 총 1만7665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경남이 18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6번째, 광주는 12번째를 기록했다.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금액은 광주 67억8900만원, 전남 88억1200만원 등 전국적으로 1618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계좌를 이용한 광주·전남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피해 건수는 2017년 271건(19억1900만원)에서 지난해 364건(27억3600만원)으로 34.3%나 뛰었다. 올 들어 8월까지 344건(41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했고, 피해액은 이미 넘어섰다.

광주도 2017년 145건(10억1900만원)→2018년 259건(27억9500만원)→올해 8월 223건(29억7500만원)으로 매년 오를세다.

이 의원은 "농협상호금융이 지난해까지 5명에 불과했던 보이스피싱 예방인원을 29명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 전체 피해액에 대한 피해 환급금액 비중은 16.3%에 머물고 있다"며 "전국 4739개 농축협 점포별로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3세 여아 속옷 사진 유포자 무죄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의 영상통화 도중 속옷 상의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배포한 3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

○...9일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פו된 사진 속 피해자는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면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사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제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안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동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우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풍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9-1500	·광산 944-0444	